

# 예불문에 불교핵심 담겨 있나?

## 한국종교학회 주최

###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학술대회



"현행 예불문은 올바른 인생 교육시스템으로서의 불교 본래 의미를 지닌 새로운 예불문으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사진)는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6월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전반기 학술대회에서 예

불의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을 통한 중층적 접근을 시도해 관심을 모았다.

김종명 교수는 '현대 한국예불의 의미와 구조'란 논문을 통해 '예불의 시공간적 구조' '예불의 내용 구조' '예불의 불교적·기능적·실천적 의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불교사상과 교리 분야에 예불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양산 통도사의 새벽예불을 중심으로 모색했다.

김 교수는 예불의 실천적 의미 분석을 통해 "현행 예불은 예불문의 암송으로만 이루어진 짝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응답 및 토론의 기회는 승·재가를 막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통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불은 사회통합기능을 가진다'는 통설에 대해 △예불 참가자 수 △예불진행 방식 등의 실태를 들여 반문을 펼쳤다.

예불의 사회통합기능이란 심성과 규율, 내면과 외면, 개인과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자 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상징적 의례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 인원이 300명에 가까운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대형 사찰에서도 예불에 참가하는 수는 대략 30~50명 미만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예불 본 의례보다 오히려 예불 전 의례에 소요된 시간이 3배 이상 많았고 예불에 참석하는 인원도 노년, 학생, 행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현행 예불의 시간 구성과 그 인적구성으로 볼 때 예불이 한국 승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불교학, 중국·일본 종교, 기독교 등 종교를 매개로한 문화콘텐츠 개발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컸다

김종명 교수 '예불은 사회통합 기능한다' 통설 비판

구미래 연구원 "齋物은 종교-민간 역동적 만남의 상징물"

특히 김 교수는 "불교의 핵심사상은 연기설, 사성제, 삼법인 등으로 대표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불문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예불문과 축원문이 대승불교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중생구제와 보살행에 대한 내용보다는 불보살의 가호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해인사 보경당 새벽예불에서의 축원은 방자 축원, 가족 건강, 소원성취 등 신도들의 기원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축원에 소요된 시간만도 20분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윤원철 교수는 "불교의 사상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한 예불문의 해석적 비판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 한국사찰 전체를 통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일부 사찰에 국한한 자료조사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교수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물론 예불에 대

한 현재의 논쟁들과 각국의 예불문의 특성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던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불교의례 재발견'의 중층적 의미"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종교의례에 쓰이는 재물의 유형과 상징성에 대해 집중 조망했다.

구 연구원은 "재물은 신적 존재에게 바치기 위해 재단에 올리는 공물로 종교와 민간의 역동적 만남을 가능케 하는 상징물"이라며 "이는 의례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재물 올리는 사람의 정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례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 허남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종교다문화화 특성이 강한 편인데 종교적 진리와 종교의례를 올바르게 융합·접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종교의식은 인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 조선불화 양식-중 수록화 제목 삼장보살도 탄생

"삼장보살도는 조선시대 불화 양식과 중국의 수록화가 접목된 독창적 불화인 동시에 역불승유 정적 속에서도 불교를 전파시킬 수 있게 한 매개체였다."

서울역사박물관 김정은 연구관은 6월 1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35회 동국

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기원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중국 원·명시대의 수록화와 조선시대 삼장보살도의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삼장보살도는 지장보살, 천장보살, 지지보살을 한 폭에 담은 불화로 특히 지장보살 신앙을 심화·확대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도사, 천은사, 동화사 등의 삼장보살도가 대표적 예다.

노병철 기자

## 문화재 보존·관리 규제대상 18건 관련법 개정 24일 시행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른 규제대상 18건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국보·보물지정이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사적·명

승·천연기념물 지정 등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현재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고, 예고한 날부터 6월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 보호구역 대상 토지 소유자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등과 관련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노병철 기자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3>

### 고령화 사회

2020년을 바라보며 국가적으로, 범인류적으로 준비해야 할 이슈로 고령화사회를 들 수 있다. 연령대별 인구분포가 전통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에서 장독대, 혹은 팥이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 즉, 연령 대 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의 수가 많았지만 미래에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쪽의 인구분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경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세포 유전자는 같은 나이의 사람에 비해 텔로미어가 짧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세포의 노화를 속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 유해 산소 흡수, 내분비 계통 노화 등 노화의 원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서 노인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존경하기도 했고 생산적이지 못한 천덕꾸러기로 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은 질병이나 안전 그리고 정체성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과 싸워왔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 노인,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사회에 귀감되는 삶의 모델로 만들어야

우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 내에 100명 중 10명 이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 환경 그리고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65세 이상이면서도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퇴직 후 30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노는 노인이 생기게 된다.

생물학자들은 노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자에 노화를 기억하는 장치 때문일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생각한다.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의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세포가 분열할 때 마다 짧아진다는 것이다.

범위에서 인류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건강하고 고도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사회에 가늠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반야심경>에서는 무노사, 무노사지이라고 가르친다. 늙고 죽어도 없고 늙고 죽음이 없음을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고령화 사회에 어떠한 길잡이가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늙고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사십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공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늙음을 사회의 아름다운 지혜의 본질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 참선공지도자

## 神 임상최면사

## 神 치유명상가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절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魂魄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 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근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 참선공의식 사례

-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도 돌아가서 한의원 병원, 기공, 각종 지도를 하였으나 돌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 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 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생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외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 지도자고급과정

● 일제일: 2006. 6. 23 (금요일) 14:00 - 18:00 (10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 입금계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이영하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수료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근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